

# 都市 plan의 研究

## — 都市 plan의 形과 그 變容過程 —

鄭慶雲  
東國大學校 教授

### 1. 머리말

신라王京은 六村村落社會의 촌락을 모체로해서 A.D.20세기의 오늘까지 계속 거주지역으로 승계되어왔다. 그간 성곽의 물결이 있어 규모의 대소로서의 변용은 심했지만 한번도 방기 된적이 없는 유일한 도시이다.

도시개발은 인류에 있어서 최대의 사업이 된다.

이 小論은 신라國의 육촌촌락사회말에서 사로國을 거쳐 삼국시대의 신라王京까지(A.D. 6세기, 불교가 수용되기 전까지, 또 律令 반포 전까지) 이르는 동안 도시Plan의 形이 어떻게 구성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용해 나온 것인가를 해아려본다.

한국의 文化의 定立은 신라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따른다면 신라의 고대도시 plan의 形을 찾아내면 이것이 한국都市plan의 形의 근원적 pattern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외래문명의 到來前까지의 한국인의 순수한 세계관위에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근원적인 것으로 된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도시는 목조건축이었기 때문에 소실되고 유적이 없다.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성벽의 유적도 신라에는 없다. 그러므로 도시plan의 形을 찾아 보기가 아주 힘들다. 그렇더라도 문헌을 통해서 도시발생과 발전의 요소인 정치, 사회, 경제, 인구규모와 생활양상을 도시계획적인 측면으로 정리해보면 都市plan의 形이 추출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正確한 것은 못된다 하더라도 試論적인 것은 된다고 하겠고 또는 도시plan의 形을 찾아내는 Approach가 된다고 생각했다.

한국의 국가형성 전부터 영향력이 큰 나라인 중국과 인도의 고대도시plan의 形을 찾아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六村長業 촌락형성pattern이 王宗의 도시plan의 形의 모체로 되

는 과정을 정리 해본 것이기도 하다.

### 2. 亞細亞의 古代都市plan의 形

한국에 영향을 준 중국과 인도의 두 나라의 고대도시plan의 形을 해아려 본다.

#### a) 中國의 古代都市plan의 形

중국의 고대도시plan의 形은 4각형을 이루고 있다. 도시를 성벽으로 둘러싸은 것이다. 도시plan의 계획에는 卜筮과 종교가 큰 역할을 했다.

성벽은 도시에 있어서 가장 신성한 부위로서 삼게된다. 이 성벽은 제일먼저 축조하고 그 안에 4개 정도의 main street를 두고 그 끝에 요새와 같은 대문을 축조한다. 전쟁이나 혼란시는 가로들이 다른데서부터 격리되게끔 했다. 또 성안의 건축물은 王宮을 제하고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plan으로 된다.

중국의 도시는 시초부터 하나의 전체로서 생각하고 성벽을 사각형으로 둘러싸고 성안은 서서히 가옥과 공공건물 등으로 메꾸어 나가는 과정을 갖는다.

성벽은 군주와 군주의 도시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이때의 중국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大地 자체가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도 사각형이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도시plan의 形은 사각형이 주류가 된다.

중국 고대 도시는 명료한 조직, 즉 군주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 지배된 명료한 계획인 도시plan으로 되었다. 따라서 도시plan의 layout의 하나는 개축조된 성벽이,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성안의 도시에 王宮을 중앙에 놓고 그 자체를 또 성벽으로 둘러싸고 도시속의 도시로서 장대하게 형성해 가는 형이다. 그리고 귀족들의 주택도 군주의 왕궁과 같이 했는데 다만 소규모로 된 것이 다를 뿐이고, 각기 성벽으로 둘러

러싸인 안에 작은 마을을 구성했다. 이들 작은 마을 속에는 개개의 가족들의 주택이 있고 그 하나 하나가 또 다시 벽으로 에워싼 것으로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되풀이해서 구성하고 체계를 이루고 王宮을 향하게 했다.

중국 고대 주민은 누구나 모두 兄弟로 된다는 초기의 사상때문에 공동체의 의식도 자치적인 지방정치도 발전하지 못했다. 따라서 자유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도시는 君主와 重臣들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자치적 도시이고 고대 중국의 도시변형은 주민의 자발성이 아니고 군주의 행정능력에 걸려 있었다.

도시plan의 layout의 두 번째는 주위에서(성벽으로부터) 내부로 발전하는 것으로서 內側에서 外側으로 퍼져나가는 일은 없었다. 이때문에 성문은 중요한 요소로 된다. 이 성문은 어떠한 때라도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즉 하나의 부분으로부터 다른 부분으로 뻗어지는 main street의 system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특히 南門은 신성시했다. 北門은 위험이 있는 곳이라는 관념으로 main street는 명확한 pattern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기타 대소도로는 格子型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주택은 중요한 요소로서 도로는 주택의 배치에 종속된다. 도로는 직각으로 꺾이고 小路는 막힌곳이 많게된다. 주택의 입구는 가능한 南面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의 Layout가 무질서이고 迷路와 같이 보이게 되는 원인이기도 했다.

상천과 같은 Layout로서 조직적으로 계획되는 한편 세부 detail가 풍부하게 되어있고 main street와 성벽이란 틀 때문에 도시plan은 통일된 전체로서 생각했을 때 생기는 모든 이익을 갖는 도시plan의 형이기도 했다.

### c) 印度의 古代都市 plan의 形

인도의 고대도시는 크기가 한정되어 있었다. 도시plan은 불교의

흐름을 낚는 북부인도의 종교도들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즉 “지구는 第一內側에 있는 円이고 그 둘레를 環狀의 大洋이 둘러싸고 있고, 지구의 중심에는 메루(meru)라는 고산이 높이 솟고 있다. 거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와서 4개의 대륙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세계관이다. 이런 세계관으로 고대 인도 도시plan의 형을 구성했다.

도시를 성벽으로 둘러싼다는 원리를 만들어냈다. 예컨대 12支에 대응하는 12大門의 성문 등에서 볼 수 있는 symbolism한 것과 색채의 symbolism 등등 추상적인 세계관을 구체적인 건축에 그대로 置換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도시의 형은 거의 모두 사각형으로서 성안의 가로망의 주요가로는 格子型으로 된다. 또 円型으로 구성된 도시plan의 형도 하나 둘 있다.

고대인도의 사상으로는 우주의 힘이 각 개인의 생활을 규정하고 있다고 믿는데서 도시나 주택이 그 영향력에 대응해서 구성되어야 했다. 더해서 종교적 마술적, 地卜의 인 생각이 중요한 도시plan의 요소로서 되곤 했다.

街路의 Layout는 경험과 직시력의 결합에 의한 마술적, 상징화의 命대로 했지만 그래도 실용적인 배료를 무시하지는 않았다. 집들의 방향은 도로의 Layout에 영향을 준다. 또 村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하나의 지구를 구성하는 단위로 했다.

집의 symbolism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주택이란 인체를 Model로 해서 만들어진다. 동쪽벽에 입구와 格子手工장식이 있어야 한다. 또 벽에는 인간의 눈에 해당하는 龕壁이 두 개 있어야 한다. 창은 사람의 코에 상당하고 中庭은 주택으로선 肺의 역할을 갖고있다. 즉 魂이 사는 집이 肉体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궁전, 주택, 사원이나 도시의 건설일 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형태 및 시각적 표현을 주는것

같다. 이와같이 造家의 기술이란 자연이 벌써 시작한 과정을 더욱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인도의 도시plan의 형을 이루는 pattern이 된다고 한다.

## 3. 사로國 人口의 規模

斯盧國(모체는 六村 村落社會도 됨)의 인구는 얼마나 되었었나를 추정해 본다.

이에 대해서 문헌에 나오는 해당부분의 기록과 고고학적인 자료들의 뒷받침이 기대 되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주 힘든 일이다.

따라서 애써 이에 대한 얻을 수 있는 자료들로서 추산해 나가 본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론적인 수치는 얻어진다고 생각한다.

한편 사로국은 고대 농업혁명이 이루어진 후의 사로국 건국이라고 본다면 인구추정은 생물의 성장곡선식으로 추산할 수도 있겠지만여기서는 人口歷史學에서 가정하는 고대인구의 연 증가율을 적용해서 추정해 본다.

인구는 도시plan의 형을 성립하는 원동력이고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또한 역사의 연륜이기도 하다. 사로국의 인구는 農耕生活이 주로 되는 시대의 인구증가양상을 바탕으로 생각해서 산정해야 된다고생각한다.

### A. 三國誌(東夷傳) 記錄으로 본 人口

三國誌의 다음 기록으로 추산한다.

三國誌(東夷傳, 馬韓)……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萬戶.

三國誌(東夷傳, 弁韓)……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이 기록을 A.D. 3세기 후반경의 사정이라고 본다면(全海宗 :東夷傳의 文獻의 研究) A.D. 3세기 후반경의 사로국은 적어도4,000~5,000호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된다.

그러므로 4,000~5,000호×5인/호=20,000~25,000인 정도의 인구 규모였다는 것으로 된다.

(여기서 5인/호로 잡은 것은 金正基: 韓國竪穴住居址考: 1974, 考古學, 古代住居址가 5~6인이 살 수 있는 space로 되어 있었다는데 의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로국의 건국시(六村 村落社會의 末葉) 즉 57B.C.때의 인구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P_0(1+0.008)^{300} = 25,000\text{인}$$

$$10.91P_0 = 25,000\text{인}$$

$$P_0 = 2,291\text{인}$$

$$\text{호수는 } 2,291 \div 5 = 458\text{호}$$

고로 57B.C.경의 사로국 인구는 약 2,300인의 규모이고 호수는 460~500호 정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A.D. 3세기경은 이웃 辰韓小國들을 복속시키고 小國들의 지배자였던 자들의 이주를 생각에 넣으면 이 기록의 계산보다 작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 B. 三國史記·三國遺事의 記錄으로 본 人口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다음 기록으로 추산한다.

三國史記, 3, 慈悲麻立干 (A.D. 469 12년) …十二月春正月, 定京都坊里名…

三國遺事, 1, 紀異, 辰韓·新羅全盛之時, 京中 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이 기록은 신라 전성기의 사정의 기록이 된다. 이 전성기를 文武王시대로 잡으면 A.D. 600~700년경으로 된다. 따라서 상기 기록은 A.D. 700년경의 신라 王京 (王京의 母體는 斯盧國)의 호수는 178,936호이고 인구는 178,936호×5인/호=894,680인 (1,360坊 55里)으로 계산된다.

즉 인구가 약 895,000인 이었다는 것이 된다. 이 인구수를 고대인구의 연 증가율인 0.8%로서 계산하면 57년 B.C.때의 사로국의 인구수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즉 A.D. 700년의 人口 上記記錄에서

$P=895,000$ 인 고로 57년 B.C. 때의 인구를  $P_0$ 라고 하면

$$P_0(1+0.008)^{757} = 895,000$$

$$416.5P_0 = 895,000$$

$$P_0 = 2149\text{인}$$

으로 된다. 즉 57B.C. 사로국 건국시의 인구는 2,149인이었다는 것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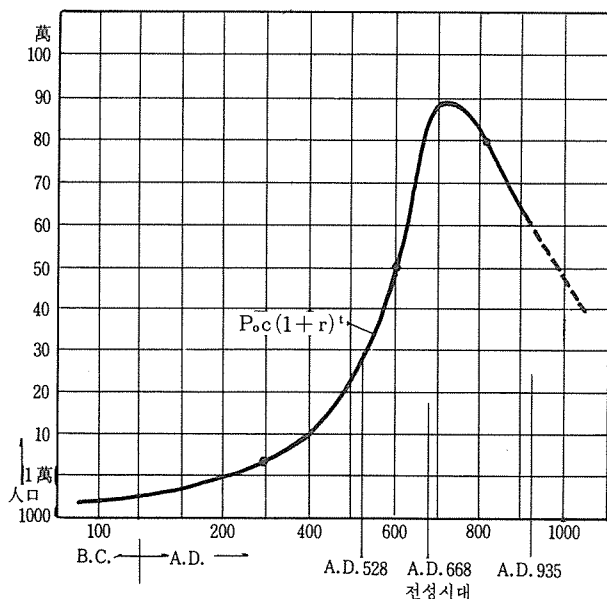
이 數字는 A항에서 추정된 三國誌의 기록으로 계산된 인구 2,291인과 거의 같다는 계산으로 된다. 즉 三國誌의 기록과 三國遺事의 해당기록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이 三國遺事의 기록으로 연대별로 계산하고 三國誌의 기록과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이 결과를 도표화한 것이 (그림 1)이다.

C. 신라 村落六書 1烟當 10인 내외라는 기록 (旗田巍: 新羅의 村落, 朝鮮中世社會에 研究, 1972.)으로 계산하면 王京人口는 178,936호×10인/호=1,789,360인이 된다. 이것은 연 증가율이 1.8%가 된다는 것으로 된다.

10인/호란 상기 문헌은 평균치가 아니고 10명 내외의 집도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王京의 영역의 면적으로 보아도 전성시의 王京人口가 178만명이란 것은 납득하기가 힘든 수치라고 생각 된다.

D. 金鍾旭 (金鍾旭: 신라 國家 形成 史 研究에서, 1982)은 사로국 건국시 (57. B.C.) 500호 정도 있었다고

年代	三國遺事의 記錄으로 본 人口數	三國誌의 記錄으로 본 人口數
57. B. C. ……	$P_0 = 2,149\text{인}$	2,272인
A. D. 1. B. C	$P_0(1+0.008)^{57} = 3,374$	3,367
A. D. 100	$P_0(1+0.008)^{157} = 7,496$	7,725
A. D. 200	$P_0(1+0.008)^{257} = 16,647$	17,608
A. D. 250	$P_0(1+0.008)^{307} = 23,456$	25,000
A. D. 300	$P_0(1+0.008)^{357} = 36,924$	39,055
A. D. 400	$P_0(1+0.008)^{457} = 81,946$	86,654
A. D. 500	$P_0(1+0.008)^{557} = 181,785$	192,226
A. D. 600	$P_0(1+0.008)^{657} = 403,365$	426,545
A. D. 700	$P_0(1+0.008)^{757} = 894,680$ (全盛時의 人口)	946,288



(그림 1) 신라 王京의 人口

계산하고 있다. 그러면 인구는 500호×5인/호=2,500인으로 된다. 이 수치는 상기 A항과 B항의 추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E. 支石基 築造時代末期(90. B. C. 경) (六村 村落社會末期)의 인구를 생각해 본다.

지석기 건축시 蓋石을 운반하는데, 蓋石의 무게가 3~14ton 에서 5~6ton 정도라고 하니까 (金之龍: 青銅時代와 文化. 1977) 운반하는데 80~100명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인원을 각 호당 1~2명씩 동원했다고 가정하면 촌락의 호수는 80~100 호로 되니까 인구는 400~500명 정도라

는 계산이 된다. 따라서 六村 村落 人口는 400×6=2,400인의 정도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F. 遺跡數를 가지고 고대인구를 추계를 한 小山修三의 연구의 계산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유적수로서 고대인구를 추산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일본 학계의 분위기에 따라 承略한다.

이상과 같이 인구규모를 추계했지만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일단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고대의 인구를 추계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이상으로 사로국 建國時(57. B.

C.)의 人口規模計算을 한 곳에 오르면 다음과 같다.

- ㉠ 三國誌 기록으로의 추계인구 2,272인
- ㉡ 三國遺事 기록으로서 추계인구 2,149인
- ㉢ 旗田巍의 호당 10인으로서의 계산인구 4,298인
- ㉣ 李鍾旭 계산인구 2,500인
- ㉤ 支石基 築造時의 노력으로의 추계인구 2,400인

여기서 ㉢항을 제한 평균은 2,330인으로 된다. 六村 村落社會가 사로국으로 출발시의 인구규모는 2,330인(호수 약 500호) 정도일 것이라고 헤아려진다. 따라서 이때의 마을은 Village라 할 수 있다.

#### 4. 斯盧六村의 村落Plan의 基本型

사로六村의 촌락plan은 신라王京의 모체가 된 사로국의 도시plan의 전신인 六村 村落社會의 촌락구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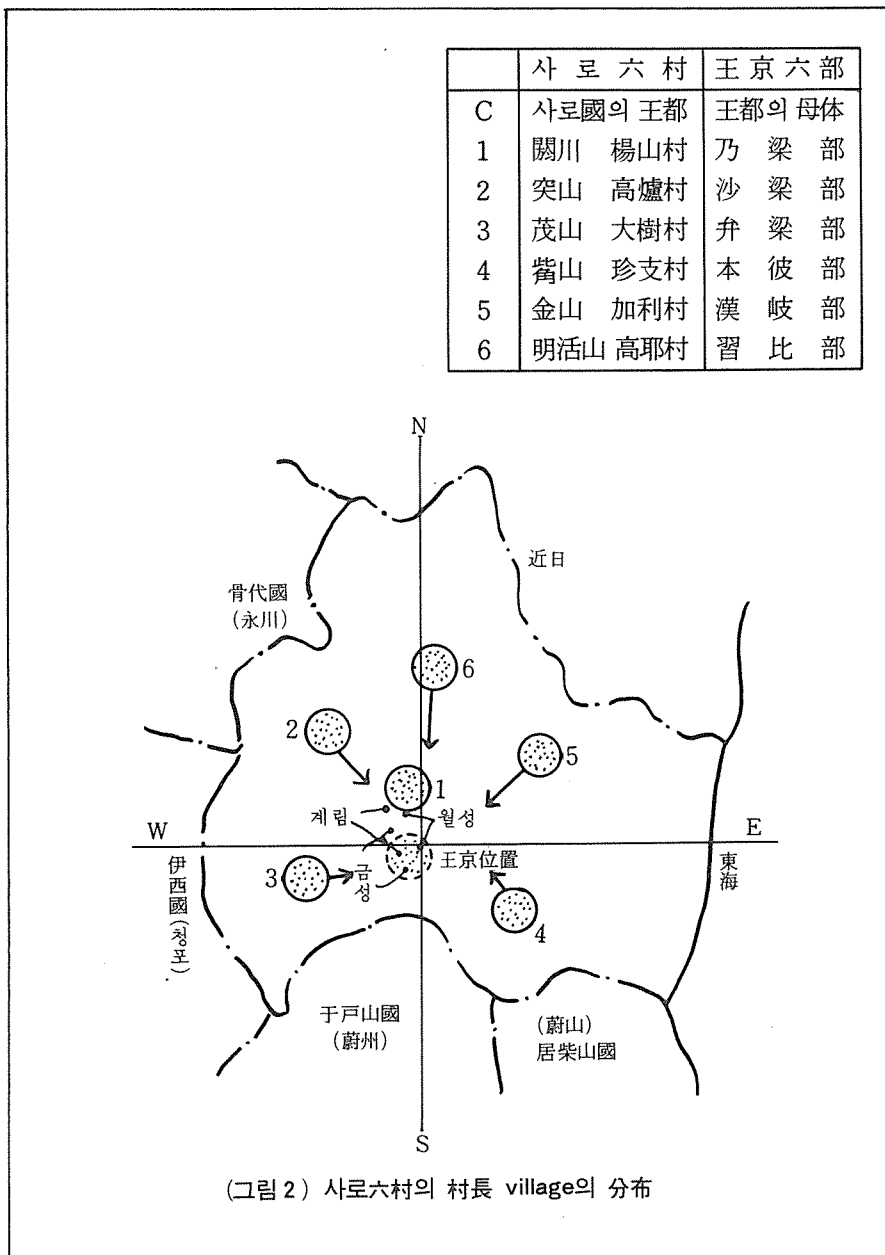
이 육촌촌락사람들은 支石基를 축조하던 사람들이고 청동기, 무문토기를 사용해 왔던 농경생활을 영위해 나온 농경민족이다.

이때의 육촌촌락사회는 지금의 경주시와 월성군을 합친 면적 약 1,000km<sup>2</sup> 정도가 되는 영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각 村長 村落(village)은 경주평야를 중심으로 직경 10km 내외의 자연조건에 의해 다음과 같이 위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경주평야의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에 關川楊山村의 村長마을이 있었고 그 남쪽에 펼쳐진 평야에는 突山高爐村의 촌장village가 위치하고 關川楊山村의 村長村落의 서쪽에 茂山大樹村長의 촌락, 동남쪽에 鶯山珍支村長의 촌락, 동쪽에 金山加利村長의 촌락, 북쪽에는 明活山高耶村長의 村落이 자리잡고 있었다.

##### a) 사로六村의 住民構成

사로六村의 주민은 氏族長系와



그 밑에 家系長系 다시 또 그 밑에 小家系長系로 나누어지고 있었다. 이들은 민족집단으로 구성하고 血族 원리에 의해 통솔하고 혈연 계보상 서열이 위인자(seniority)가 村長으로 되어 지배자로 된다. 이들 家系lineage집단은 인구증가와 농경지 부족으로 씨족장촌락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새로운 촌락을 이루곤 했다. 이 촌락을 家系長集團이라 한다.

이런 가계장집단의 촌락이 4~6개 촌락으로 되면 다시 가계장촌락의 인구증가로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새로운 小家系長村落을 형성했다. 즉 分家部族(segmentary tribe)의 촌락을 구성해 나간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촌락구성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즉 내측에서 외측으로 퍼져나가는 성격을 가졌다고 본다.

그리고 사로六村長은 서로 친족 집단의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촌락의 성격이나 구조는 동일하고 또 주민구성이나 문화, 사회 체제도 동일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戶口數는 差違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b) 사로六村의 경제

사로국 직전의 사로六村은 農耗 기술(鐵製 도구사용)의 고도화로서 자급자족의 경제system과 고도의 목공기술의 뒷받침으로 촌락의 구조가 도시화로 향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鐵製釘 發見. 木棺의 정밀성에 의함)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각 촌장의 촌락간에 물자교류가 많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도로의 정비가 아니되고 주민들의 이동도 그리 자유롭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교역이 있었다는 史實이 있다고 하나 촌락구조에는 크게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 c) 사로六村의 村落의 構造

사로육촌의 村長의 촌락을 구성

하는 核은 촌장의 거관으로 되고 Frame의 조직은 원시농경사회의 pattern인 선상pattern(그림 3)으로 이루어져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로육촌 촌락의 성격이 가계lineage집단이고 인구증가로 선상으로 퍼져나갈 수가 없다. 따라서 사로육촌장 촌락은 放射集中pattern(그림 4)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유는 선상pattern은 인구증가에 따라 村長居館과의 거리를 일정한 거리에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촌장거관과 일정거리를 두고 생산지(농토)까지의 거리도 일정하게 되는 방사집중pattern(그림 4)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방사집중pattern도 인구증가에 한계가 있는 고로 한계에 달하면 일부는 떨어져 나가 새로운 마을을 형성한다. 즉 외측으로 확대시키는 system을 밑에 깔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교통수단 보조가 없을 때 농부는 거리 1km까지는 100% 경작이 가능하고, 1km에서 2km까지의 사이의 경작은 50% 밖에 안되고 2km에서 3km사이의 토지는 30% 정도 밖에 경작이 안된다. (그림 4) 따라서 수송차량(이때는 牛馬車)의 출현으로 상기 거리가 확대되지만 그때까지는 (그림 5)와 같이 구성해 나갔다고 생각 된다.

放射集中pattern으로 구성된 육촌 촌장촌락이 인구증가로 일정거리를 두고 가계장으로 분가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5~6개 마을이 되면, 다시 가계장마을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小家系長마을을 5~6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6) 이때의 사로六村村長村落(village)는 주거 시설 외에 다른 용도를 가지는 항구적인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시대의 주민들은 가계lineage집단의 성원이기 때문이다. 村長居館도 정치적 통솔용 공간을 주거와 겸하고, 창고 정도가 있었다고 헤아려진다. 정치적 집합시는 村長居館의 앞마당이란 광장이 생각된다. 따라서 사로六村마을의 Pattern은 마을의 圍郭을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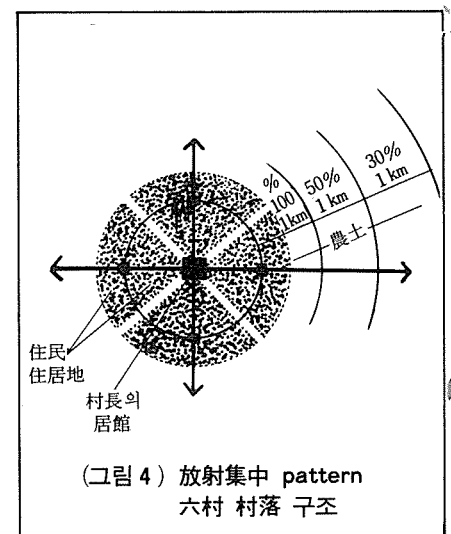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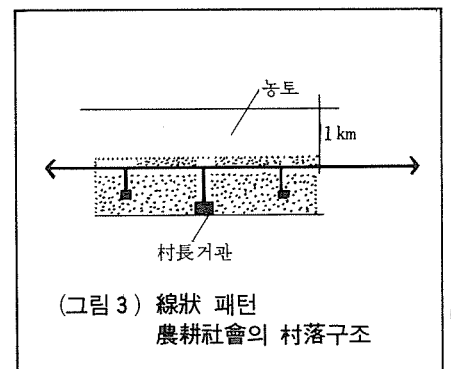
쌓고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식량의 보전을 위한 木棚 또는 土塹을 축조 했었다는 주장이 믿어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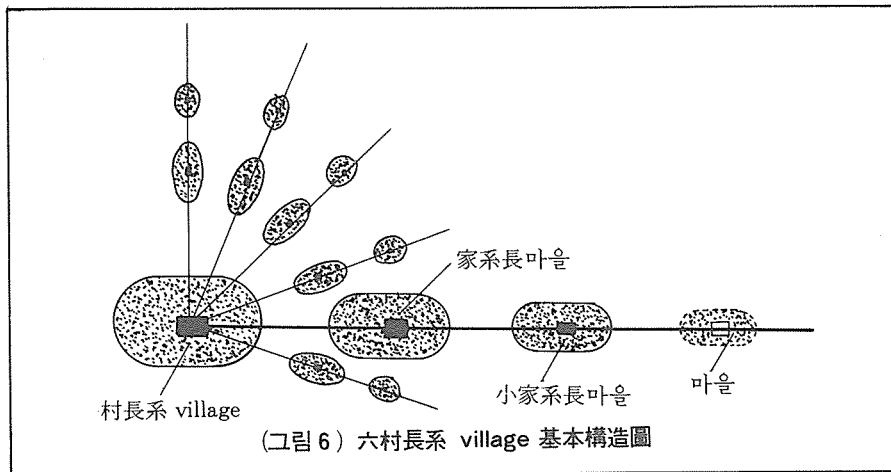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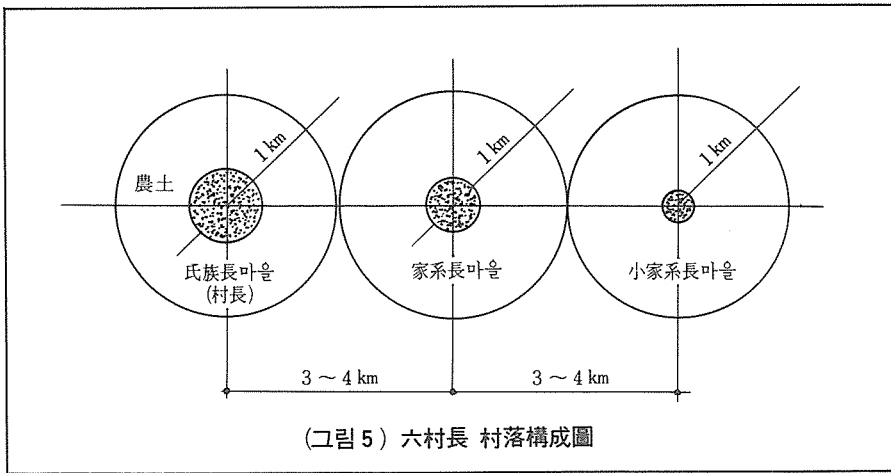
## 5. 사로國의 都市plan의 形

사로육촌이 통합되어 사로국이 형성된다. (사로국은 신라王京의 母體이다.) 이때의 영역은 약 1,000km<sup>2</sup> 내외로 되어 있었다. 이 면적은 중국의 춘추시대의 公侯國이나 Greece의 도시국가와 같은 규모로서 비교된다. 또 사로국은 철기, 騎馬, 농경기술의 향상으로서의 경제발전과 또 交易 등 안으로 문화의 고도화, 사회체제, 정치체제 등의 발전으로 보아 국가를 형성할만큼 되어 있을 때이기도 했다.

### a) 政治, 社會, 經濟

赫居世가 王으로 등장한후 朴氏族의 거주지인 金城지역과 昔氏族의 거주지인 月城지역, 그리고 金氏族이 살던 鷄林地域을 합친지역





을 王都라고 했다. 그리고 六村長系 村落지역을 王畿라고 하고 모두 王都로 向을 갖게 했다. 그리고 아울러 六村을 다스리는 정치적 지배자로서 왕권을 세우고 세력을 가다듬기 시작한다.

君長地位를 차지한 朴氏族王系와 육촌 촌락사회시대로부터의 촌장계 후손들과는 혈연적인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여기서 신분제도가 생겨난다. 그리고 아직 王의 통치조직이 완비치 못한채 이웃 辰韓小國을 복속시켜 나가기 시작한다. 이때의 주력은 六村長系의 軍團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료국의 정치세력은 王보다 六村長 세력이 우세했고 六村長系地域 즉 王畿地域에 대한 통치도 육촌장 후손들이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견해의 이유로 육촌장계의 촌장들과 그 제자들의 승계로서 朴氏族의 赫居世를 王으로 삼았다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따라서 王都의 구성도 육촌장계 후손들의 조직으로 되

었다고 헤아려진다. 또 촌락사회때와는 달리 祭政이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체제가 A.D. 2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辰韓小國을 복속시키면서 한편 국력도 신장되어 나가고 정치조직도 사료국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王과 六村長系와 가계장계 등이 2~3段階의 계층으로 편성되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경제는 철제도구의 제작, 수송수단인 牛馬車 등이 등장함에 따라서 개개인의 농경지가 확대됨으로써의 생산력이 향상되고 非食糧生産者의 인구증대로 기술발전이 되었고, 축업의 발전과 공산품 제작 향상 등으로 생활이 활발해진다. 또 외국과의 교역도 활발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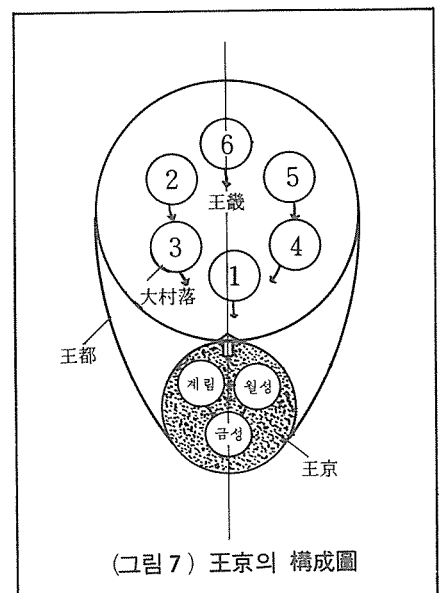
#### b) 사료국의 都市plan의 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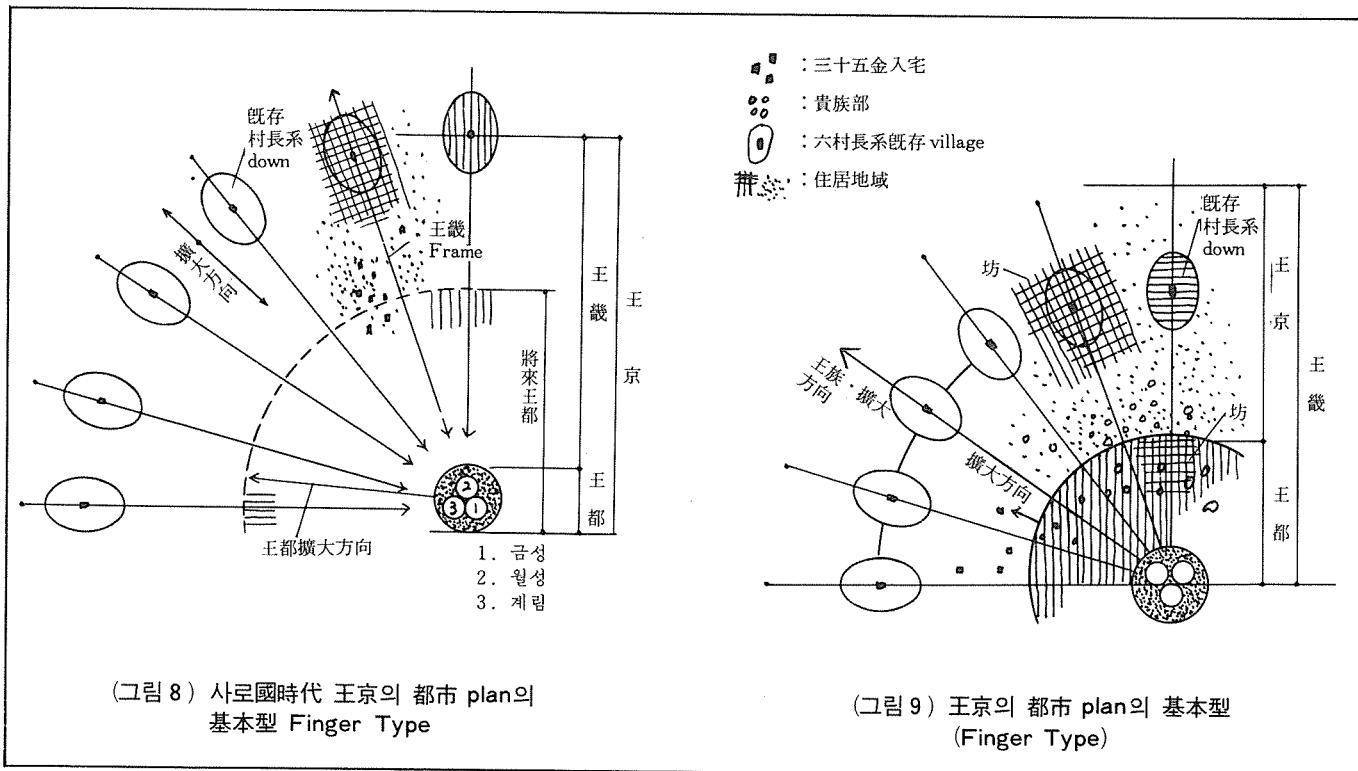
사료六村으로 형성된 사료국이 王京으로 발전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 신분제도 등 여러 면에서 육촌 촌락사회의 성격을 잘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王都와 王畿를 합친 영

역을 王京이라고 했는데 王都안의 金城地域에 王宮을 축성하고 (후에 月城지역에 王宮축성하고 月城이라 했다.) 金城이라고 했다. 여기서 宮室政治를 한다. 六村長村落은 모두 王都의 방향으로 확대방향을 잡고 촌장촌락에서 하나씩의 main street로 연결시킨다. 왕도에서의 확대 방향은 촌장마을으로 확대방향을 잡는 Frame으로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三國史記34, 地理 1, 三國史記 2, 金傳干) 여기서 王都는 사료국의 정치와 신분적 중심지역으로 된다. 넓이는 직경 3km 정도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王京이나 Greece의 도시국가의 구조pattern은 圍郭都市로서 구성되었지만 사료국의 王京구조는 내측에서 외측으로 퍼져나가는(확대해 나가는)형으로서 既存村落群인 王畿와 civic center격인 王都로서 구성되고 외측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된 사료국 특유의 도시plan의 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王都와 王畿를 합친것이 王京이라고 생각할 때 王京은 town 단계를 넘어서 city의 단계로 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既存村長down群에서 王都까지의 主가로 (main street)가 주골격인 구조로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王京의 도시plan의 형은 Finger type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림 8) 사료國時代 王京의 都市 plan의 基本型 Finger Type

(그림 9) 王京의 都市 plan의 基本型 (Finger Type)

이때의 六村落群들은 王京 구성에 있어서 지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로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 6. 三國時代의 新羅王京의 都市 plan의 形

사료국의 王京이 A.D. 307 基臨王 10년에 국호를 신라로 복구된다. 따라서 新羅王京이 된다. 사료국의 王京을 그대로 승계된다. 이때의 新羅는 辰韓小國들을 완전히 복속시킨 후 모두 통합한다. 이로써 국토가 확대되고 국력이 크게 신장된다. 그리하여 삼국중의 한 나라로서 자리를 굳히게 된다.

#### a) 政治, 社會, 經濟

朴氏族王系와 昔氏族王系가 물러나고 金氏族王系가 통치하게 된다. 이때의 王宮은 月城이다. 따라서 朴씨계왕족과 昔씨계왕족 및 후손들은 귀족으로서 王都에 거주한다. 또 삼개씨계왕족의 葛文王系도 신분이 육촌장계 후손보다 위에 놓이고 왕도지구에 거주하게 된다. 따라서 王都가 확대해 나가는 도시 계획적인 요소들이 된다.

王京의 정치조직은 중앙정부조

직, (宮室정치로부터 政事堂 정치로 됨) 六部조직, 가계장계 지역조직 (후에 里가 됨) 다시 세분된 조직(후에 坊이 됨)의 4단계로 구성된다. 軍事는 귀족 및 육촌장계의 私兵軍團이 우세했다. (통일전쟁시는 主力軍團이었다고 한다.) 이때의 王權下의 군사력은 약소했다고 한다. (중앙정부에 兵部를 설치할 것은 A.D. 519년 法興王 때)

중앙정부도 왕권을 능가할 정도의 세력을 가지는 大等會議member인 귀족들의 존재가 다른 정복 王朝와 다른 점이 된다.

신라정치체제가 왕조로서 특이한 것은 세습제가 아닌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귀족들의 세력 등으로의 二元制 통치라고 할 수 있다.

경제는 농경생산system의 고도화와 공산품의 생산기술의 발전과 외국과의 교역량의 증가로 주민의 생활향상은 도시화에 박차를 가했다. (후의 三國遺事의 四節遊宅이란 기록이 될 정도로 됨) 또 철기 제작기술은 무기생산도 향상시켰고 목탄으로 귀족들 가정Energy원으로 했었다는 기록도 큰 경제 발전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 b) 王京의 都市 plan.

사료국의 王京plan을 그대로 승계된다. 王都의 Layout는 왕궁 주위에서 외측으로 확대해가는 기본적인 plan으로서 main street는 육촌장촌락군을 연결하는 기본pattern을 갖게 된다. (그림 9) 政廳도 궁실에서 政事堂으로 다시 南堂 등으로 변용되면서 civic center를 구성하고 인구증가로 部, 里, 坊을 정비확대 주거지역을 정비해나간 이때의 王京의 도시plan의 형은 Finger type로 되면서 육촌장시대의 village의 pattern위에 확대 정비해나가는 과정으로 변용해 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도시plan의 형의 pattern으로서 中, 下代에 계승되어 갈 것이다. 中代에 律令이 반포되고 불교를 수용하고 또 대외적인 발전을 하는 등 하나의 문명왕국으로 되어 간다. 문명국의 王京으로서 불교문화 등이 王京都市plan의 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변용해 나가다가 문제로 남는다.

### 7. 結 論

● 六村聯盟體를 거쳐 사료국을 건국, 辰韓 소국을 완전히 복속시킨 후 신라왕국으로 이어지는 긴 역

사를 가지는 王京의 도시plan의 형은 六村長村落構成의 pattern을 原形으로 하고 있다.

●中國 古代 都市plan의 형은 君主 개인의 의지에 지배된 명료한 계획으로 사각형으로 되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圍郭都市이다. 신라王京의 도시plan의 형은 中國의 形과는 아주 다르다.

●신라王京은 中國의 고대도시와 같은 성벽이 없었다. 王京안에 있는 王宮도 성벽으로 둘러싼 것이 아니고 塹壁으로 土塹格인 것이다. 이것은 圍郭都市形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

●신라王京의 都市plan의 形의 기본형은 Finger type라고 해아려진다. (그림 9)

●六村村落社會 때의 六村長村落群의 구성pattern을 원형으로 하고 확대정비해 나갔고, 기본적인 골격의 변용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신라王京의 도시plan의 형의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都市plan의 形이 이루어지는 과

정을 도시하면 (그림 10)과 같다.

●도시plan의 形은 그 사회와 문화가 기술과 생활양식을 매개로서 자연환경에 따라 발전해 간다고 한다. 또 사회나 문화가 자연에 역사적 변화를 던지는 시간과 동시적으로 여러가지 變化形을 준비하는 空間이라는 요소는 사회의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system系로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삼국시대의 王京은 자연환경, 생활양식은 촌락사회 때의 것을 그대로의 승계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술향상과 사회체제의 변화와 문화의 정립과정이 王京의 都市plan의 形을 다듬어서 확대해 나갔을 뿐 골격의 기본의 변용은 없다는 과정을 신라王京은 밟았다.

●이 고찰에서 불교를 수용하면서 외래문명 도입으로 또 律令반포로 문명왕국으로서의 王京의 도시plan의 형의 究明을 남겨 놓게 된다.

이 연구는 '84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를 研究費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 A study of city plan

— (The form of city plan and The process of transform) —

• This study is made in order to reveal the form of city plan in ancient Korea. If it would be done, The original form of Korean city plan would be established. Most Korean historeans say Korean civilization begins from silla dynasty period, so this study treats origination of form of city plan and process of its transformation silla dynasty period.

• Ruins of ancient Korean cities in early silla dynasty period do not remain enough to help study ancient Korean city plan, because ancient Korean cities were made of wooden house (buildings) and wooden bridges, Therefore I abstracted factors of population, politics, social structure and economic and cultural levels which played important roles in origin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cities from literatures of history, archaeology and city planning, among them samguksaki and Samgukgusa are chief references, then summarized those factors in the view of city planning.

•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would say that the basic structure of city plan in early silla dynasty period is that of finger type.

## 參考文獻

- 三國誌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李基白：韓國史新論(改正版), 1976 • 金哲垓：韓國古代社會研究, 1975 • 旗田巍：新羅의 村落(韓鮮中世社會史의 研究), 1972
- 全海宗：東夷傳의 文獻의 研究, 1980
- 李鐘旭：新羅國家形成史研究, 1982
- 金元龍：韓國의 古墳, 1974 • 日笠端：都市計劃, 1980 • 鬼頭宏：日本二竹の人口史, 1980 • 室永芳三：大都長安, 1982
- 川添登：都市と文明, 1966 • 中村春壽：日韓古代 都市計劃, 1978 • 彰國社編：日本の 都市空間, 1972 • Arthur Korn：都市形成의 歷史, 1980 • 伊東俊太郎：都市と古代文明의 成立, 1974 • 로버트, 마르사스：初版人口의 原理, 1975 • 맥क्स, 웨버：都市의 類型學, 1964
- 루이스, 만프카드：都市의 文化, 1955. 丸善 • William T. Sands, ed：The Basin of Mexico, 1980 • Kent. V. Flannery, ed：The Early Mesoamerican village, 1976 • E. A. Gutkind：Twilight of cities, 1962

